

방위사업청, 국방규격 품질 개선사업 시행

- 방위사업청(청장 이용걸)은 5월 21일 부터 양질의 군수품 조달을 위해 군수품의 규격을 개선하는 ‘국방규격 품질 개선사업’을 시행한다.
- ‘국방규격 품질 개선사업’은 군에서 운용중인 장비와 수리부속, 물자류 조달시 국방규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불만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처음 시행했다.
-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입찰을 통해 (재)한국조달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 21일 부터 약 8개월간 350여개의 군수품을 대상으로 국방규격을 개선할 예정이다.
- ‘국방규격 품질 개선사업’은 2012년도 규격개선사업을 통해 국방규격의 오류를 시정하고, 국방규격 없이 견본으로만 조달되던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함으로써 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했던 제품분석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.
- 또한, 대량으로만 구매 가능하던 소재를 소량단위로 구매가 가능한 소재로 대체함으로써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.
- 2013년도 사업은 2012년도 사업의 연장선으로 국방획득환경과 방산시장 실정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. 주요 추진사항은
 - 중소 업체의 생산여건 개선을 위해 군수품 중 수리부속류 180여 품목의 규격을 신규로 제정하고, 장비의 장기간 운용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소재 및 시험조건 등도 함께 개선한다.
 - 또한, 장병들에게 체형에 맞는 전투복을 보급하기 위해 전투복 치수 규격도 최근 장병 치수 기준으로 개정하며,
 - 매년 수행하는 정부 규격과 업체 기술자료 일치를 위한 규격점검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. 이미 국방기술품질원, 각 군, 관련 업체 등을 통하여 개선 대상 군수품을 선정하였으며, 5월 중순부터는 관련기관 및 업체와 협조하여 현장 점검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.
- 방위사업청 장비규격팀장(육군대령 노수훈)은 “2013년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통해 군수품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,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된다.”라고 말하였다.
- 방위사업청은 향후에도 국방규격 품질 개선사업 및 정부 규격과 업체 기술자료 일치를 위한 현장확인 활동 등 국방규격에 대한 정비와 개선을 통해 우수한 군수품 생산

과 품질보증업무 여건을 보장하고, 방산업체의 생산여건을 향상시켜 주요 고객인 수요군과 업체의 만족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.

2013 05.21 방위사업청